

제8과 예루살렘 입성과 가장 큰 계명 (11,1-13,37)

마르코 복음서 11장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마태 21,1-11) ; (루카 19,28-38) ; (요한 12,12-19)

- 1 그들이 예루살렘 곧 올리브 산 근처 벳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 2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 3 누가 너희에게 '왜 그러는 거요?'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러는데 곧 이리로 돌려보내신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 4 그들이 가서 보니, 과연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바깥 길 쪽으로 난 문 곁에 매여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푸는데,
- 5 거기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이,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 6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 주신 대로 말하였더니 그들이 막지 않았다.
- 7 제자들은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겹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앉으시자,
- 8 많은 이가 자기들의 겹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들에서 잎이 많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깔았다.
- 9 그리고 앞서 가는 이들과 뒤따라가는 이들이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 10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 11 이윽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곳의 모든 것을 둘러보신 다음,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열두 제자와 함께 베타니아로 나가셨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다 (마태 21,18-19)

- 12 이튿날 그들이 베타니아에서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시장하셨다.
- 13 아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멀리서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달렸을까 하여 가까이 가 보셨지만,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 14 예수님께서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르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어느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 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

성전을 정화하시다 (마태 21,12-17) ; (루카 19,45-48) ; (요한 2,13-22)

- 15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에 들어가시어, 그곳에서 사고팔고 하는 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셨다.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도 둘러엎으셨다.
- 16 또한 아무도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지 못하게 하셨다.
- 17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 18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을 엿앨 방법을 찾았다. 군중이 모두 그분의 가르침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그분을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 19 날이 저물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다.

말라 버린 무화과나무의 교훈 (마태 21,20-22)

- 20 이른 아침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았다.
- 21 베드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보십시오. 스승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

22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을 믿어라.
2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25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26)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님의 권한을 문제 삼다 (마태 21,23-27) ; (루카 20,1-8)

27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성전 뜰을 거닐고 계실 때,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이 와서,
28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또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소?"
29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에게 한 가지 물을 터이니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 주겠다.
30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대답해 보아라."
31 그들은 저희끼리 의논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말할 터이니,
32 '사람에게서 왔다.' 할까?" 그러나 군중이 모두 요한을 참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을 두려워하여,
33 예수님께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마르코 복음서 12장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 (마태 21,33-46) ; (루카 20,9-19)

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 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2 포도 철이 되자 그는 소작인들에게 종 하나를 보내어, 소작인들에게서 포도밭 소출의 얼마를 받아 오라고 하였다.
3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를 붙잡아 매질하고서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4 주인이 그들에게 다시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쳐서 상처를 입히고 모욕하였다.
5 그리고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죽여 버렸다. 그 뒤에 또 많은 종을 보냈지만 더러는 매질하고 더러는 죽여 버렸다.
6 이제 주인에게는 오직 하나, 사랑하는 아들만 남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7 그러나 소작인들은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 버리자. 그러면 이 상속 재산이 우리 차지이 될 것이다.'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8 그를 붙잡아 죽이고는 포도밭 밖으로 던져 버렸다.
9 그러니 포도밭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돌아와 그 소작인들을 없애 버리고 포도밭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10 너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 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11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12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워 그분을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 (마태 22,15-22) ; (루카 20,20-26)

13 그 뒤에 그들은 예수님께 말로 올무를 씌우려고,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 몇 사람을 보냈다.

14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과연 스승님은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까?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15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닢을 가져다 보여 다오.”

16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7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 드려라.” 그들은 예수님께 매우 감탄하였다.

부활 논쟁 (마태 22,23-33) ; (루카 20,27-40)

18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19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20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맏이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21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22 이렇게 일곱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23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2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25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26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 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27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가장 큰 계명 (마태 22,34-40) ; (루카 10,25-28)

28 율법 학자 한 사람이 이렇게 그들이 토론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29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30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31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32 그러자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합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

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33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34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 22,41-46) ; (루카 20,41-44)

35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 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36 다윗 자신이 성령의 도움으로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네 발아래 잡아 놓을 때까지.'

37 이렇듯 다윗 스스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마태 23,1-36) ; (루카 20,45-47)

38 예수님께서서는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겹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39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40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 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 (루카 21,1-4)

41 예수님께서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돈을 넣었다.

42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렵톤 두 닢을 넣었다. 그것은 콰드란스 한 닢인 셈이다.

43 예수님께서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44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마르코 복음서 13장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시다 (마태 24,1-2) ; (루카 21,5-6)

1 예수님께서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스승님,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돌들이고 얼마나 장엄한 건물들입니까?"

2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 웅장한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재난의 시작 (마태 24,3-14) ; (루카 21,7-19)

3 예수님께서서 성전 맞은쪽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아가 따로 예수님께 물었다.

4 "저희에게 일러 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누구에게도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6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이를 속일 것이다.
 7 그리고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불안해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아직 끝은 아니다.
 8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곳곳에 지진이 발생하고 기근이 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통의 시작일 따름이다.
 9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는 너희가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
 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증언할 것이다.
 10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11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법정에서 넘길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마라. 그저 그때에 너희에게 일
 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12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
 이다.
 13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어 내는 이는 구원
 을 받을 것이다.”

가장 큰 재난 (마태 24,15-28) ; (루카 21,20-24)

14 “있어서는 안 될 곳에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 서 있는 것을 보거든 — 읽는 이는 알아들으라. —
 그때에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라.
 15 옥상에 있는 이는 내려가지도 말고 무엇을 꺼내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마라.
 16 들에 있는 이는 겼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마라.
 17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와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18 그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19 그 무렵에 환난이 닥칠 터인데, 그러한 환난은 하느님께서 이룩하신 창조 이래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
 도 없을 것이다.
 20 주님께서 그 날수를 줄여 주지 않으셨으면, 어떠한 사람도 살아 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몸
 소 선택하신 이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줄여 주셨다.
 21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다!’, 또는 ‘보아라, 저기 계시다!’ 하더라도 믿지 마
 라.
 22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이들까지 속이려고 표징과 이적들을
 일으킬 것이다.
 23 그러니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둔다.”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 (마태 24,29-31) ; (루카 21,25-28)

24 “그 무렵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25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26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27 그때에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
 이다.”

무화과나무의 교훈 (마태 24,32-35) ; (루카 21,29-33)

28 “너희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
 이 온 줄 알게 된다.

29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30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31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깨어 있어라 (마태 24,36-44)

32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33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34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35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36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37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말씀 새기기

1. 드디어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 때 일어난 일들을 적어 봅시다. 군중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줄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로 생각하고 환호합니다. 그러나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한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며, 이 장면을 적어봅시다.(11,1-11)
2.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를 요약해 봅시다. 이 비유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12,1-12)
3.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은 각각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수석 사제와 율법학자, 원로들과의 논쟁 (11,27-33), 바리사이와 헤로데 당원들과의 논쟁(12,13-17)에서, 사두가이들과의 논쟁(12,18-27)을 보며 빈칸을 채워봅시다. 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을 요약해 봅시다.
4.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가는 계명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12,31)는 둘째 계명 안에서 여전히 구현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묵상해 보며, 나는 이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12,28-34; 루카 10,25-28 참조)
5.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무엇이라고 예언하십니까? (13,1-2) 종말의 재난들을 내용별로 간추려봅시다. (13,3-31) 예수님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가르치십니까? (13,32-37)

말씀 살기

1.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인들을 쫓아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11,15-19) 하느님의 성전인 내 안에서 정화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큰돈을 넣는 부자들에 비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봉헌합니다.(12,41-44) 가난한 과부는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하였을지 생각해 보고, 나의 렘톤 두뇌는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2. 종말을 묵상하면서 누구나 맞게 될 죽음을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지 생각해 봅시다. 마르코 복음 13장은 공간 복음의 묵시록이라고도 불리며, 종말론적 담화를 담고 있습니다.(교회 안에서 종말은 하느님과의 만남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됩니다.) 당대의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말씀이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13,1-37)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 있음의의미는 무엇일지 나누어 봅시다.